

## 북합리조트 사업자 선정 게이밍업계 훈풍? 역풍?

외국인 카지노 이용객 증가  
집적효과가 있을지는 의문

북합리조트 사업자 선정, 과연 국내 게이밍(카지노) 업계에는 훈풍일까, 역풍일까.

지난 주, 북합리조트 사업자로 인천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북합리조트가 결정되면서 앞으로 외국인 전용 대형 카지노가 새로 생기게 됐다. 인스파이어 북합리조트는 미국에서 카지노 북합리조트 '모히건 선'을 운영하는 MTGA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그들이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투자규모나 미국에서 '모히건 선'이란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단순히 외국인 카지노 한 개가 새로 생기는 것 이상의 큰 파장과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인스파이어 북합리조트의 등장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꽤 복잡하다.

현재 국내 게이밍 산업(카지노)에서 'TOP 3'는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이중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오픈 카지노인 강원랜드를 제외한 파라다이스와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는 북합리조트의 등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때 북합리조트 사업을 검토하다가 철수한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일단 한국 게이밍 산업의 시장이 커진다는 점에서 인스파이어 북합리조트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랜드코리아레저 관계자는 "그들이 사업계획서에 밝힌 대로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새로운 이유가 생긴 것 아니냐"며 "큰 규모의 카지노 영업장이 들어서면서 산업이 재편되고 시장의 볼륨도 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스파이어의 후보지 바로 옆, 제1국 제업무지역에 현재 북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를 건설하고 있는 파라다이스의 입장은 훨씬 신중하고, 또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했다. 총사업비 1조 3000억원의 파라다이스 시티는 내년 상반기 호텔과 카지노가 1단계로 오픈할 예정이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북합리조트가 영종도에 모여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은 보겠지만 마카오나 라스베이거스 같은 집적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집적효과는 겹쳐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밀접해야 하는데, 3개 모두 너무 떨어져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이 지금보다 급격히 성장하기가 쉽지 않아 북합리조트간의 경쟁은 당분간 치열해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 고즈넉한 절터,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 ■한국관광공사 선정 '3월 가볼 만한 곳'

다가오는 봄향기와 함께 역사의 숨결 느껴볼까. 꽃소식이 남쪽부터 시나브로 올라오는 3월, 한결 따스해진 햇살과 함께 나가는 봄나들이로 오랜 세월의 자취가 담긴 옛 절터는 어떨까. 한국관광공사는 '지금도 사라진 옛 절터-폐사지를 찾아서'라는 테마 아래 '3월 가볼 만한 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 ▶여유롭고 온화한 남한강 절터(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원주는 남한강 인근에는 흥법사지, 거둔사지, 법천사지 등 신라 시대 창건해 임진왜란 때 사라진 폐사지가 여럿 있다. 세 곳 모두 고려 시대 왕의 스승인 국사가 머물던 사찰이다. 비록 건물은 사라졌지만 탑과 탐비 등이 남아 고려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폐사지의 고즈넉한 정취는 발굴과 복원이 끝난 거둔사지가 가장 뛰어나다.

### ▶하늘재 절경과 어울리는 충주 미륵대원지, 청룡사지(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충주에는 역사 여행지로 좋은 사찰 터 두 곳이 있다. 우선 미륵대원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갯길인 하늘재 아래에 있다. 북쪽 월악산을 바라보는 석불에는 마의태자와 얽힌 전설이 있다. 청룡사지에는 섬세한 조각이 돋보이는 보각국사 혼수의 부도가 있다.



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흔적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충남 보령의 성주사지. 삼층석탑과 뒷쪽에 보이는 오층석탑 모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다.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 ▶자연과 어울린 쌍사자 석등 있는 곳, 함천 영암사지(경남 함천군 가회면 황매산로)

영암사지는 여느 절터처럼 석탑과 석등 같은 문화유산이 남아있지만 절집의 내력은 자세히 밝혀진 것이 없다. 절터가 기암절벽과 절묘하게 어울린다. 아름다운 쌍사자 석등이 이곳을 대표하는 유물이다. 정상 부근까지 차로 갈 수 있는 해발 1000m가 넘는 황매산 해발에서 내려다보는 풍광이 제법 아름답다.

### ▶허물어진 절터에서 온기를 느끼다, 보령 성주사지(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사지길)

보령 성주사지는 크고 유서 깊은 절터다. 국보 1점, 보물 3점의 유물이 있다. 폐사지의 외형만 봐도 변창했을 당시 규모가 짐작된다. 국

보8호인 당해화상탑비는 무령대사를 기리기 위해 최치원이 비문을 지었다. 보물로 지정된 오층석탑과 삼층석탑 등도 절터에 있다. 성주산 자연휴양림, 개화예술공원, 보령석탄박물관을 함께 둘러보면 좋다.

### ▶조선 최대의 왕실 사찰로 떠나는 시간 여행, 양주 회암사지(경기도 양주시 회암사길)

양주에는 고려 중기에 지어져 조선 중기에 폐사된 것으로 추측되는 회암사지가 있다. 태조 이성계는 스승으로 모시던 무학대사를 회암사 주지로 보내고 자주 찾았으며, 왕위에서 물러난 뒤 이곳에 머물렀다. 이색의 '목은집'에 실린 '천보산회암사수조기'를 바탕으로 복원한 절 모형은 회암사지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 H+ 양지병원 개원 40주년, 제2의 도약 선언

### 中 청도에 'VIP 건강검진센터' 건립 추진

환자중심 병원, 생활문화 병원, 소통하는 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 2일 개원 40주년을 맞아 '병원 그 이상의 병원'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는 등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 ●40주년 맞아 '희망풍선 날리기' 등 이벤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2일 40주년 기념행사로 'H+희망 풍선 날리기-감사의 마음, 치유의 흠새 되어'를 개최했다. 개원 년도를 의미하는 1976개의 풍선에 꽃씨와 메시지를 담아 보내는 행사로 병원 개원 년도와 같은 해에 태어난 1976년생 의료진과 임직원을 비롯한 총 476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고객 감사의 마음과 함께 앞으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다짐했다. 오후 7시부터는 입원환우와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해요 40년' 힐링콘서트를 열었다. 또한 40년 감사의 마음을 담은 'Thank You! 763' 감진할인 이벤트를 오는 26일까지 전개하는 등 대규모 행사를 펼친다.

### ●제2병원 건립·중국진출 등 적극 추진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개원 40주년을 계기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외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먼저 치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각 치료 센터 별 '스마트 맞춤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특화시설을 강화한다. 또 인근에 제2투석센터를 건립하여 투석실 규모를 확대하고 수도권 내 제2병원 건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진출도 고삐를 당겼다. 해외교포 대상 고국방문검진 및 몽골·러시아 나눔진료, 중국 등 의료 관광객 유치 위한 국제진료센터를 강화한다. 특히 중국 청도에 최상급 'VIP 건강검진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미 중국 관련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본격 실무접촉에 돌입했다. 중국진출 프로젝트는 연내 기본 사업플랜을 세우고 가시적인 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은 "큰 탈 없이 개원 40주년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개원 40주년 기념행사에서 H+ 양지병원 의료진과 임직원들이 개원년도를 의미하는 1976개의 풍선을 날리고 있다. 사진제공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병원을 신뢰해 준 수많은 환자들과 지역주민들의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정도를 걸으며, 환자가 원하는 진짜 의료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 해법을 찾는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에 단 하나뿐인 '생활문화병원, 환자중심병원, 소통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세호 기자 sol@donga.com

## 창원시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만든다"

### 로봇랜드·해양관광단지 등 조성 계획

"창원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키우겠다."

경남 창원시는 2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창원관광 설명회'를 열고 해양신도시,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 테마파크 등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창원시는 발표회에서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주남호를 비롯해 숙박물관인 '굿데이 뮤지엄', 관광공사와 함께 조성한 '상상길', 봄철 대표 꽃축제인 '진해군향제', 가을 '가고국 국화축제' 등 기존 관광콘텐츠와 함께 대규모 관광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공개했다. 창원시가 진행 중인 대규모 관광시설로는 마산합포구 앞바다에 조성하는 인공섬 해양신도시를 비롯해 국내 첫 로봇산업 테마파크 '로봇랜드', 골프 등의 레포츠와 헬스케어 타운으로 구성된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 '구산해양관광단지', 해양스포츠 육성을 위한 마리나 조성사업 등이 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날 발표회에서 "창원이 그동안은 기계공업 중심의 전통산업이 주력이었으나 앞으로 IT를 융합한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이 창원을 발전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범 전문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강한남성**  
★효과100%후불제★  
미제 정한통(30정) 품은박(32정)  
1회복용 5일지속 / 각종캡슐  
통통 홍초 쓰임없는강한발기  
010-5906-0667

**강한남자 미국정품**  
★후불제.탁월한효과. 강한발기/각종캡슐  
도매가.카드가 010-7600-4116

**본사 제품 50% 할인판매**

|                   |        |
|-------------------|--------|
| 남성도우미걸(일제)        | 3만원    |
| 빅맨(남성분들의 3가지고민해소) | 3만원    |
| 실리콘 발기골 3종(대,중,소) | 2만원    |
| 정력팩트 3매           | 2만 9천원 |
| 남성도우미걸(특대)        | 15만원   |



고려물산 공장직영판매  
010-5608-1237  
010-2655-1326  
농협 302-0895-9522-41 고려물산

**강한男子**

음경 확대 귀두 확대 조루 치료 발기부전

●미세자가지방 이식술  
●주사요법 확대술  
●대체진피 이식술  
●정관·포경수술  
●바세린 및 이물질 제거술  
●각종보형물 삽입술

**발기부전** 봉(팽창형·굴곡형) 임플란트 시술

[수술당일 일반적인 생활가능]

24시간 상담 **대일남성의원**

(代) 02) 457-8778

※일요일·공휴일·야간 예약수술가능  
※5·7호선 군자역 6번출구 동협 2층

**당당한 자신감!**  
**남성 수술 상담**  
음경 길 이 + 귀두 조루수술

★주사요법 확대  
★대체 진피이식술  
★포경·무도정관수술  
★각종 이물질 제거 (바세린 등)  
★음경만곡증 (성기형) 교정술  
★발기부전수술 (굴곡형.팽창형 시술로 성생활 가능)  
※수술 당일 샤워, 일반적인 생활 가능

**천호역 뉴맨남성의원**  
02) 477-7523  
위치 : 5호선 천호역 2번출구 한국투자증권 3층

www.198282.net  
**신음소리에서 과성소리까지!**  
**명기**  
외로운 밤~♡  
외로운 남성들을 위로해주는  
**명기가 최고야**  
국내산 폴리우레탄으로 제작  
절대 무독성이며, 촉감이 부드럽고,  
탄력이 우수, 휴대하기 간편하여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성인용품점이나 시중에는 없는 국산품입니다. made in korea**  
★국내최고의제품절대 터지지않습니다★  
실물보다 더 섹시한 공기인형 "명기"  
"명기"와 놀다보면 날 새는줄 모릅니다  
제품문의 1588-4101/010-3895-4114